

大學의 研究機關

洪 一 植

(高麗大 國語國文學科)

I. 머리말

대학은 敎育機關인 동시에 研究機關이다. 敎育과 研究라는 두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로서의 大學의 位相은 그 發展過程과 현실사회에서의 役割을 고려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

대학에 설치된 각종 研究機關에 대한 올바른 論議는 대학의 本質에 대한 이 같은 분명한 前提 위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연구기관들이 그 發展을 저해당해 온 根本的인 原因은 대학의 機能에 대한 올바른 視角의 不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오늘날 각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研究所들은 敎育機關으로서의 大學에 '附設'된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것은 研究機能이 敎育機能에 從屬되어 온 우리의 大學現實을 그대로 反映하는 것이며 동시에 대학에 대해 敎育만을 기대해 온 社會的 要求의 產物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研究機能이야말로 敎育機能의 前提라는 사실이다. 나아가서 大學이 연구하는 個人들의 共同體만으로서도 그 存立意味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의 本源의 領域은 오히려 研究機能에 있다고 할 것이다.

II. 研究機關의 機能

대학의 연구기능이 연구기관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研究行爲는 교수 개인의 獨自의인 次元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연구기관에 의한 연구라 할지라도 연구의 實際는 교수 또는 연구원 개인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研究機關은 대학에서 행해지는 제반 연구작업 중에서 共同 혹은 協同作業에 속하는 영역을 수행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이를 細分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첫째, 각종 情報의 交換機能이다.

같은 분야를 전공하는 研究者들의 結集體인 연구기관에서는 研究主題의 설정은 물론 연구진행 과정에서의 資料蒐集, 學問的 成果에서의 情報流通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동일한 主題의 重復研究에서 잊어지는 時間과 勞力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情報의 共同管理 기능은 個別的 研究의 폐쇄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갈수록 學問이 細分化되고 이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모습을 日新해 가는 오늘날의 學問 風土에서는 情報의 원활한 소통이 研究機關의 1차적인 機能으로 부각되고 있다. 外部로부터

의 情報流入에 따르는 연구자들의 經濟的, 時間的 부담을 덜어 주는 것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둘째, 學派를 형성하는 震源地로서의 기능이 다.

이 기능은 研究機關이 同一한 關心分野에 속하는 人的 構成을 갖는다는 데서 출발한다. 個別的 研究가 연구의 종료 이후에 批判을 受容하는 것과는 달리 연구소에서는 研究의 最終段階 轉換 이전부터 동료 연구자들의 비판을 수용할 수 있다는 長點을 갖게 됨으로써 하나의 主題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다.

또 從的으로는 젊은 研究員들이 이 過程에 참여하여 학문적 훈련을 받게 되고 그 成果에 대해서 世代間的 연계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같이 研究所를 중심으로 學問研究의 一貫性이 자연스럽게 유지, 공고화되는 가운데 하나의 學派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產學協同의 기능이다.

대학이 世俗의 중심으로 내려온 지가 이미 오래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대학은 現實을 '멀리서 바라보는' 자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학교수들의 世俗 接觸은 學問外的인 오해의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社會에 대한 大學의 벽은 엄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研究機關은 비교적 자유스럽게 世俗와 交流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지난 '60년대 이래 우리 社會의 近代化 과정에서 社會科學을 중심으로 한 각종 政策의 提示 및 自然科學 분야에서의 產業技術의 研究開發은 지대한 공헌을 한 바 있다.

大學과 現實을 잇는 연결고리로서의 이 機能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대학의 研究機能이 이제 더 이상 추상적인 형태로만 존재할 수 없게 되었으며, 教育機能과 마찬가지로 現實의 諸條件과 만나 보다 具體的인 모습을 갖추게 됨을 의미한다.

첨언하자면, 이 같은 기능이 '現實'쪽의 요청에 의해서 소위 '프로젝트'의 형태로만 稼動될 것이 아니라 大學 研究者들이 임의로 행한 研究成果들을 產業界에서 選別的으로 이용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자칫 一回的이고 消費的이며 偏重的인 研

究活動을 自招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研究機關의 現況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1984년 현재 우리나라 종합대학교에는 무려 5백 17개의 附設 研究機關이 설치돼 있다. 각 단과대학 수준에서도 보통 7~8개씩의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1천여 개 소에 이를 것으로 推算된다. 물론 그 중에는 '세마을운동연구소' '學生指導研究所' 등 순수 학문과는 다소 거리를 둔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研究機關의 量的인 多寡에 대한 論議는 우리의 실정에서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앞에서 열거한 그 本然의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 또한 研究所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연구기관들은 그 운영에 있어서나 연구실적의 면에서 存立意味조차 희의를 가질 지경에 와 있다.

대부분의 研究教授 또는 研究員들은 그저 이름만 올려 놓은 것이 常例로 되어 있고 1년에 한 두 번의 學術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에도 큰 부담을 가져야 하는 형편이다. 더우기 論文集은 年 1회라도 定期的으로 간행되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다. 결국 우리나라의 연구기관들은 觀念 속에서만 그 機能을 갖고 있을 뿐이다. 단지 '대학다운'을 꾸며 주기 위한 들러리, 또는 대학의 具色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장식용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뜻이다.

연구기관이 붕착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財政에 있다.

참고로 필자가 운영하는 高大 民族文化研究所의 경우를 보면 연구소의 支出項目은 크게 ① 各種研究費 ② 圖書刊行費 ③ 諸行事費 ④ 運營費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난 '84년도와 지출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연구비 지급이 전체의 48.6%로 가장 많고, 운영비(30.9%), 도서간행비(14%), 제행사비(6.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같은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收入은 일반적인 研究所들의 경우 ① 學校補助費 ②

圖書販賣費 ③ 用役(프로젝트)收入 ④ 各種支援金 ⑤ 利子收入 등으로 되어 있다. 역시 民族文化研究所의 '84년도 수입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도서관매비가 42.9%로 가장 높고, 학교보조비(26.6%), 이자수입(22.6%), 각종 지원금(8.0%)의 순이며 용역수입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研究所의 收入은 위의 ③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봉쇄돼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학당국에서 나와야 하는 운영보조비는 연구소 종사자들이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대학은 研究機關의 發展에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것이 대학살림살이인데 어떻게 연구소 운영에까지 신경을 쓸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 대부분인 것이다.

또 도서관매비의 경우에도 연구기관에서 출판하는 서적들이 모두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一般讀者들을 대상으로 하는 市場販賣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有價販賣에 이처럼 制約이 있는 상황에서는 연구소가 부담해야 하는 刊行費用은 더욱 무거워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항목 역시 봉쇄된 것이나 다름없다.

각종 支援金은 用役에 의한 收入과는 다른 性格을 갖는다. 특정한 主題에 대해 研究를 요청하고 그 經費를 부담하는 것이 用役인 데 반해, 支援金은 연구기관에서 임의로 계획한 研究事業에 뜻있는 團體나 個人이 격려의 의미로 전달하는 것이다. 용역수입조차 점차로 감소해 가는 현실에서 지원금이란 기대하기가 무척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利子收入은 주로 연구소의 設立 당시 有志人士들이 각출한 設立資金에서 實際費用을 제하고 적립한 基本資産에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赤字를 면하기도 어려운 연구소 실정에 基本資産에서의 利子收入이 존재할 리 없으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비로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영세하기 마련이다.

결국 우리의 研究機關들은 스스로 自生의 길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와 있고 이것을 지명해 주는 것이 바로 外部로부터의 用役, 즉 프로젝트收入인 것이다.

프로젝트는 정부, 기업, 외국기관에서 發注가 되는데 後述하겠거니와 최근에는 정부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巨대한 研究機關을 設立·運營하여 각종 프로젝트를 내부적으로 소화하는 경향으로 되어 가고 있다. 또 설령 用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구과제 자체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므로 프로젝트에 의한 연구만으로는 研究所의 특색이나 研究의 長期的인 一貫性을 잃기가 쉬워 이 같은 연구는 거의 一回用으로 그치게 된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면에서 프로젝트는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다는 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못할 것이다.

또 産學協同이 誤導되어 産業界一方의 필요에 의해서만 協同이 이루어지게 되면 大學의 研究機關들은 應用科學이나 政策分野 등으로 편중되어 모든 學問의 바탕이 되는 基礎科學分野가 소홀히 될 우려가 생긴다.

財政과 함께 研究機關이 직면한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연구소의 人的 構成과 관련된 人事側面에서 제기된다.

우선 財政의 貧困에서 오는 人力確保의 애로점이다. 일정한 研究課題가 주어질 경우 연구비를 지급받는 研究教授, 또는 先任研究員들을 제외하고 各種資料의 수집 등 연구의 基礎作業을 수행할 수 있는 研究要員들은 一定給料에 의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들을 受容·管理할 수 있는 財政的 뒷받침이 어렵다는 것이다.

研究所長이 教授資格으로 配定받은 助教 1명과 研究所 要員으로 채용되는 助教級 1명이 고작인 실정에서는 研究機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 결과 연구요원들이 수행해야 할 각종 基礎作業들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研究教授들이 임시로 고용하는 人力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는 연구소의 學問蓄積과는 無關한 결과를 낳는다.

人事側面에서의 두번째 문제점은 研究機關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所長의 직책이 인종의 補職化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研究機關들이 學科中心으로 설치돼 있어 研究機關의 人事管理가 그 學科에 從屬되는 데서 비롯된다. 學科와 研究所의 밀착관계는 研究分野의 同一性으로 보아 불가피하다고 하겠으

나 그것이 研究所長의 順番制 취임과 같은 형태로 歸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같이 침체된 人事에서 시작되는 研究所 行政이라면 결코 活性化를 기대할 수 없는 것 또한 당연하다.

研究機關의 責任을 맡는 사람은 義務나 權利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使命感을 가지고 자신의 情熱을 쏟을 수 있는 각오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주위의 여건이 어렵고 힘겨울수록 잠시 閑職에 머물고 있다는 식의 무사안일한 자세를 떠나야 하는 것이다.

IV. 活性化 方案

연구기관의 活性化를 위한 몇 가지 提議를 하기에 앞서, 앞에서 언급한 問題點들이 發生하게 된 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序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大學을 ‘教育機關’으로만 파악하여 研究機能을 경시해 온 風潮가 가장 먼저 지적될 수 있다. 이 같은 認識이 정부당국이나 대학으로 하여금 教育의 分野로만 投資를 집중케 하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다. 연구는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한, 연구기관의 발전은 요원하기만 한 것이다.

최근 文教當局에 의해 교수들에 대한 연구 獨려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을 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 그렇다면 연구 그 자체로서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일까. 또 이런 상황 아래서는 교수들마저 ‘오직 가르치기 위해 연구하는(study for teaching only)’ 무사안일의 경향으로 흐르지 않을 수 없다.

위의 原則論의인 要因 이외에 大學當局과 研究機關 사이의 거리감도 연구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보다 직접적인 要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당국이 연구기관을 보는 基本視角은 前述한 바이거니와 그 반대로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설립된 지 오래된 研究所일수록 소위 ‘뜻이 맞는’ 교수들에 의해 내용적으로 거의 自生的

또는 私的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大學當局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당국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는 소박한(?) 發想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비록 연구소 운영이 어렵더라도 누구에게든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겠다는 폐쇄적인 태도는 불행하게도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 연구소가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돼 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범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끝으로 產學協同과 관련해서 大學의 研究機關에 대한 產業界의 要請이 目前之利에만 급급한, 즉 눈에 보이는 利益이나 效果로 즉시 반환될 수 있는 쪽으로만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정부기관의 경우 프로젝트 撥注가 자신들이 이미 設定해 놓은 政策方向에 대한 合理化를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것은 協同이 아니라 產業界에 대한 大學一方의 從屬化를 의미할 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다소 방만한 論議를 토대로 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改善點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大學內에서 研究機關의 위치가 격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 문제를 學科와의 기능분담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기로 하자. 오늘날의 대학은 學科를 최소단위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學科는 教育機能과 大學行政의 수행만을 전담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研究機能을 수행하는 최소단위로서 研究機關을 活用하는 方案이 제시될 수 있다.

가령, 대학이나 屯교당국에서 교수들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를 學科 중심이 아닌 研究機關을 중심으로 집행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위치를 실질적으로 強化할 수 있다. 또, 주로 單科大別로 刊行되는 大學의 論文集도 이를 보다 細分化해서 研究所別로 發刊케 하는 것도 한 方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기관들은 學科와 水平의인 관계에서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연구소 自生의 기본조건을 확보하게 되리라 본다.

(2) 大學의 研究機關들이 政府나 企業이 운영 하는 一般研究機關들과 共存하기 위해서는 스스

로 獨自의인 領域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일반 연구기관들이 주로 現實의인 目的에 부응하여 應用科學·政策分野의 方向으로 연구목표를 설정한다고 할 때, 대학의 研究機關들은 基礎科學分野에서 그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關係當局에서도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長期的으로 이에 대한 現實의 需要는 날로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 대학 경영진에서도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3) 企業을 포함한 產業界와 大學의 研究機關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밀접한 協力體制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자체 연구소를 증설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연구기능의 수용이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共同으로 연구기관들과 有機的인 協同體制를 갖는 方案이 모색될 수 있다. 특히 外國 市場에서의 競爭力 提高를 위한 技術의 共同開發이라든지 기술집약적인 業種의 中小企業들과의 連繫는 經濟社會的인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4) 처음에 제시한 研究機關의 위치 격상과 관련해서 大學院과 研究機關의 關係를 強化하는 作業이 요청된다.

碩·博士課程에 있는 學生들은 學問研究의 一定水準에 와 있으므로 이들을 각 연구기관에 소속시킴으로써 研究의 實際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이들이 연구기관의 人的 構成을 두텁게 하여 研究要員의 확보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5) 研究機關 종사자들의 經營能力이 提高되어야 하겠다.

특히 연구소 운영의 책임자인 所長의 경우 자신의 역할을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국한시켜서는 안 될

다. 비록 작은 單位이기는 하지만 연구소도 하나의 조직체인 만큼, 불필요한 財源의 支出이나 不合理한 行政 등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연구소 財政을 위한 對外交渉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財政과 行政에 신경을 쓰는 것을 자신의 學問的 손실이라고만 생각한다면 研究所의 自生力은 결코 확보되지 못한다.

V. 結 語

우리나라에 近代的 의미의 大學이 設立된 이래 우리의 大學들은 그동안 다른 어느 나라에서 보다는 社會的 要請과 긴밀한 協力關係를 유지해 왔다. 本論議에서 이 같은 現象은 研究機能의 위축, 즉 教育機能의 상대적 強調을 歸結시킨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 現實은 점차 大學의 研究機能을 강조하는 方向으로 나아갈 것이 예상된다. 우리의 傳統的인 教育熱이 식어갈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社會가 先進化되어 가는 過程에서 產業의 각 분야에서 大學에 대해 유능한 人材와 함께 研究成果를 供給해 달라는 要請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現時點은 大學의 위상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轉換期라고 할 수도 있다. 연구기관에 대한 우리의 論議가 궁극적으로는 大學의 本質 통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연구기관의 發展이 大學의 現實에 대한 反省作業 위에서만 가능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우리는 研究機關 자체만을 따로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전개된 社會構造의 變動과 거기에 對應하는 대학의 問題로서 研究機關의 發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